

소백산 힐링관광클러스트 활성화 방안 연구

소백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Sobaeksan Healing Tourism Cluster

Focusing on the southern area of Sobaeksan

주 저 자 : 이승환 (Lee, Seung hwan)

동양대학교 교수

fani@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s.2021.4.251>

접수일자 2021. 11. 20. 심사완료일자 2021. 12. 15. / 게재확정일자 2021. 12. 24.

본 논문은 2020학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Abstract

Tourism development is a series of activities aimed at satisfying various needs such as the purpose of tourists visiting the region, and promoting the social and social warfare of the region. Tourism resources are industrialized based on natural,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Sobaeksan is a tourism resource in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sangbuk-do, and Danyang-gun, Chungcheongbuk-do Province, has achieved the achievement of attracting 10 million tourists by actively utilizing the natural resources of Sobaeksan Mountain to build a surrounding tourism infrastructure. However, the northern part of Gyeongsangbuk-do does not utilize the major tourist resources of Sobaeksan. In this study, we propose to construct a tourism infrastructur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orthern region of Gyeongbuk by investigating tourism resources using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through the analysis of tourism resources and travel trends in Yeongju, Yecheon, and Bonghwa in the neighboring regions.

Keyword

Sobaeksan(소백산), Tourism development(관광개발), Tourism resources(관광자원) Healing tourism(힐링관광)

요약

관광개발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목적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고 지역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관광자원은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산업화 되어 있다. 소백산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충청지방의 단양군에서는 소백산의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천만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북부지방은 소백산의 주요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접지역의 영주, 예천, 봉화의 관광자원 현황 및 여행 트렌드 분석을 통해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조사하여 경북의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제안한다.

목차

1. 서론

- 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연구의 범위

2. 관광자원 현황 및 관광 트렌드

- 3-1. 일반 현황
- 3-2. 관광자원 현황
- 3-3. 관광 트렌드 현황

3. 소백산 남부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 3-1.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
- 3-2. 소백산 힐링관광 클러스트 조성
- 3-3. 소백산권역 스마트관광 서비스 구축
- 3-4. 이석간경험방 식치음식 관광상품화
- 3-5. 동물과 곤충의 관광자원화
- 3-6. 영주댐 복합레포츠 단지 조성계획 추진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백산 관광권은 중앙고속도로, 중앙선철도와 국도3호선이 통과하는 북부권역인 단양에 비해 남부권역은 영주, 예천, 봉화는 상대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주지역을 중심으로 예천과 봉화지역의 소백산 남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소백산 남부권역의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고려할 때 중앙선 고속화로 수도권과 영주간의 통행시간이 종전 두시간대에서 한시간대로 단축되어 통행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소백산 남부권역 관광활성화 마케팅 전략 및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영주, 봉화, 예천은 수려한 자연자원과 서원, 사찰, 누각과 정자 등 유불문화와 전통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으나 대도시의 접근성 문제 관광상품의 차별화 부족으로 연계 및 패키지 상품 구성이 미흡하다.

경북권역의 소백산주변 영주, 봉화, 예천에는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백두대간수목원, 닭실마을, 분천역산타마을, 낙동강세평하늘길, 곤충생태원, 금당실마을, 천문우주센터, 용궁지역, 회포포 등 기존의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선비세상,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장수발효고택단지, 순흥고분벽화 문화벨트사업 등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더욱더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이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범위

최근의 관광트렌드를 나타내는 특징은 ‘소규모 집단’의 독립관광(SGIT : small group independent tour)이라고 할 수 있다. SGIT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만 가족이나 친구, 동호인, 연인 등 소규모 집단의 독립관광형태로 한 달 살아보기 등과 같이 디지털 환경이 조성된 농산어촌 등에서 업무와 여가, 맛집탐방 등을 즐기는 여행으로 SNS가 창출해낸 디지털 유목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지역을 상징하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둔 관광자원 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스몰브랜드(small brand)를 발굴하여 소소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관광경험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 문화, 인문 중심의 기존 관광자원에 생태관광자원, 미활용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 전략 제시. 둘째 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사업주체,

사업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마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인 관계로 대부분의 사업이 관계자간 조율과정 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어 투자가 중복되고 상품 차별성도 없으며, 관광이나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완공 후에도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지역관광 마스터플랜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지역관광 개발 및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필수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소백산 남부권역(영주, 봉화, 예천)으로 제한하며 내용적 범위는 소백산 관광상품개발의 기본 방향 및 목표수립 및 지역 연계 관광상품개발을 제안한다.

2. 관광자원 현황 및 관광 트렌드

2-1. 일반 현황

2-1.1 역사문화적 특성

영주-예천-봉화는 경북북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 2건(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총300건(국가지정 207건, 도지정 52건, 문화재 자료 41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 하고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지역이다.¹⁾

2-1.2 지리적 특성

영주-봉화-예천은 소백산 남쪽과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동시, 서쪽으로는 문경시, 동쪽으로는 울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북부는 죽령을 기점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마구령을 경계로 강원도 영월군과 3도가 맞닿아 있다.

영주-봉화-예천의 면적은 각각 661.48km², 1,202.03km², 661.48km²로 합계 2,533.6km²로써 남한면적(99,274km²)의 2.55%, 경상북도 면적(19,022km²)의 13.32%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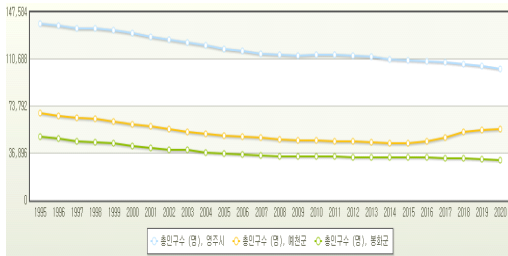
소백산을 끼고 있는 북쪽은 지형이 험한 편이지만 중부와 남부는 평탄한 침식 구릉지대로 높은 산이 많이 없는 편이며, 다른 경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논밭만 큼이나 과수원이 많은 사과의 주산지이다.

2-1.3 인구 구성

2021년 8월 현재 영주-예천-봉화의 인구는

1) 고달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주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p.26

102,258명, 55,846명, 30,969명, 합계 189,07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북도청의 이전을 계기로 예천 군인구가 증가하여 감소추세는 다소 완만해진다. 이는 교육 및 취업으로 인한 전출 및 이농현상의 심화, 그리고 현대 정보산업도시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진 탓으로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영주·예천·봉화 인구추이 (KOSIS)

2-2. 관광 자원 현황

2-2-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018년 6월 30일 바레인인 수도 마나마에서 열린 제 42차 회의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의 산사 7곳이 등재되었는데,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이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2019년 7월 6일 돈암서원(충청남도 논산시), 무성서원(전라북도 정읍시), 필암서원(전라남도 장성군), 남계서원(경상남도 함양군), 도동서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산서원(경상북도 경주시), 병산서원(경상북도 안동시), 도산서원(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2-2 문화재 현황

영주·예천·봉화에는 국보 9종, 보물 58종, 도지정 유형문화재 70종, 문화재자료 116종 등 총 321종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영주의 선비촌, 무성마을, 소백산풍기온천, 예천의 회룡포, 용문사, 예천온천, 곤충생태원, 금당실마을, 봉화의 청량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분천역 등 유불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표 1] 영주, 예천, 봉화의 문화재 통계

구분	소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영주	134	7	23	4	1	3	3	32	1	8	1	46
예천	96	1	24		3	3	2	20	4	8	3	28

봉화	91	1	11	1	2	1	0	18	4	10	1	42
합계	321	9	58	5	6	7	5	70	9	26	5	116

○ 영주시 주요 문화 유산 현황

부석사무량수전(국보 제18호), 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부석사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안향 초상(국보 제111호), 부석사 무량수전앞 석등(국보 제17호), 소수서원(사적 제55호), 무성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괴현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국보 제282호), 금성대군 신단(사적 제491호), 순흥벽화고분(사적 제313호), 죽령옛길(명승 제30호) 등이 있다.

○ 봉화군 주요 문화 유산 현황

청량산(명승 제23호), 청암정과 석천계곡(명승 제60호), 서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만산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회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9호), 봉화 서설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 설매리 3경가치구명집(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송석헌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쌍벽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4호), 복지리 마애여래좌상(국보 제201호) 등이 있다.

○ 예천군 주요 문화 유산 현황

초간정 원림(명승 제51호), 회룡포(명승 제16호), 선몽대 일원(명승 제19호),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제294호), 금남리 황목근(천연기념물 제400호), 금당실 송림(천연기념물 제469호), 통명농요(중요무형문화재 제84-2호), 물체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권씨 초간공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01호) 등이 있다.

[표 2]의 소백산 남부와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비교해 보면 북부지역은 산과 호수, 레저, 액티비티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의 중심축이 단양 읍내를 중심으로 구경시장과 대형 숙박시설인 콘도가 단양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북부지역의 중심축의 부재로 점조직화 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소백산 이용의 한계점으로 북부지역은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개발행위 규제가 적으며, 남부지역은 국립공원 내 지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다. 그중 관광산업의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는 북부지역의 인식과는 달리 남부지역은 인식 비중

이 낮은 편이며 대부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육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표 2] 소백산 남부와 북부지역의 관광자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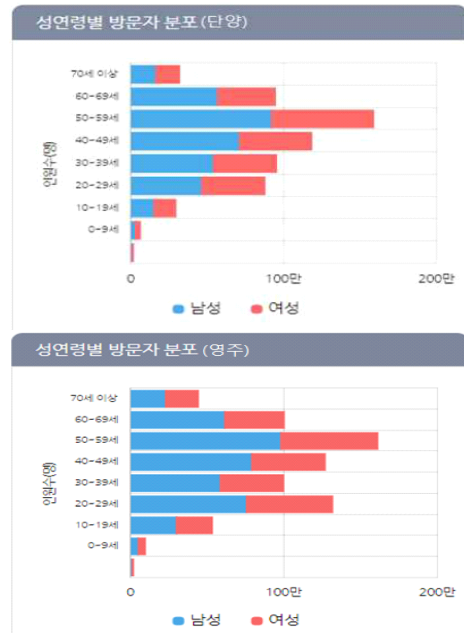
구분	소백산북부	소백산남부
관광 자원	산과 호수, 레저, 액티비티자원 등 다양한 자원 보유	자연자원 위주의 관광자원
관광 자원간 연결성	30분 거리 내에 즐길 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을 모두보유한 관광클러스터형성	관광자원이 30~40분 거리내에 있으나, 대부분이 정적관광지로 다양성이 부족함
관광의 중심축	관광중심축은 관광객 자신이 관광상품기능을 창출하는 곳임. 단양읍내 대명콘도와 구경시장이 단양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관광객을 유인함	중심축 부재. 관광객을 선호하는 먹거리는 보유하고 있으나 점조작화 되어있음.
소백산 이용 정도	국립공원외 지역으로 개발행위 규제가 적은 편임	국립공원내 지역으로 개발행위 규제가 많은 편임
관광 산업 위상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특화 및 차별화 전략 추진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이 낮음
관광개발전략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부분이 지원하는 방식과 공공부분이 주도하는 방식의 병행	대부분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방식

2-3. 관광 트렌드 현황

최근 관광의 트렌드는 관광목적지와 경험 선택에 있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관련 여행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MZ세대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롭고 개성 넘치며 자존감이 강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삶의 재미와 만족을 추구하는 MZ세대가 향후 여행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 나갈 핵심 세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방문객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²⁾

2-3.1 관광 방문객 성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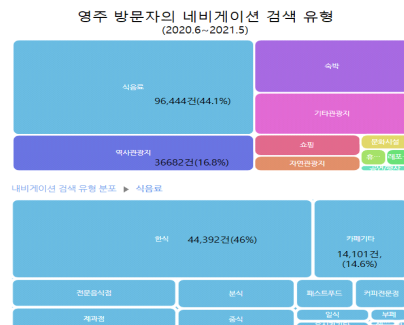
영주와 단양 방문객의 성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0년 6월부터 1년간 영주와 단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성별 분포는 비슷하다고 판단되나, 영주의 경우 20대 방문객이 30~40대 방문객보다 많다.



[그림 2] 영주와 단양 방문객의 성연령별 분포

2-3.2 영주와 단양 방문객 네비게이션 검색 정보

영주와 단양 방문객의 네비게이션 검색정보 분석을 살펴보면 2020년 6월부터 1년간 영주를 방문한 사람들은 식음료(44.1%)를 가장 많이 검색하였고, 그 다음으로 숙박, 기타 관광지, 자연관광지의 순서임. 식음료 중에는 한식이 46%로 가장 높았고 카페 및 기타가 14.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단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식음료(30.9%)를 가장 많이 검색하였고, 그 다음으로 역사관광지, 숙박, 기타 관광지의 순서임. 식음료 중에는 한식이 57.6%로 가장 높았고 카페 및 기타가 특이하게 32.1%를 차지한다. 따라서 영주와 단양 방문객의 네비게이션 검색량의 가장 큰 차이는 카페 및 기타로 단양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길다고 추정되며, MZ세대가 선호하는 감성적 공간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2) 한국관광 데이터랩 (2020.6~2021.5)

단양 방문자의 네비게이션 검색 유형
(2020.6~2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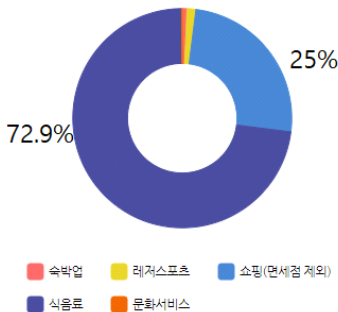


[그림 3] 영주 단양 방문자 네비게이션 검색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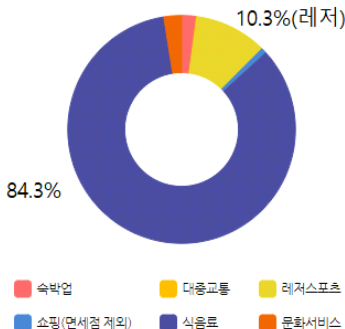
2-3.3 영주 단양 방문객의 신용카드 소비유형 분석

2020년 6월부터 1년간 영주와 단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소비 유형을 보면 도 지역이 공통적으로 식음료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으나, 단양은 레저스포츠 지출이 전체의 10%를 상회하고 있고, 숙박용도로 지출한 규모도 영주에 대비하여 단양이 높다.

영주 방문자의 신용카드소비액유형별분포



단양 방문자의 신용카드소비액유형별분포



[그림 4] 영주 단양 방문자 신용카드소비액 유형별 분포

최근 여행의 트렌드를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나벨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기 근거리 여행 증가 예상.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단기 근거리 여행 경험을 통해 충족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예상되고 있다.

MZ세대는 여행 활동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강하여, 이들 세대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여행 또한 일생에 단 한번 있는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되고 있다. 국민들의 여행 경험 이 증가하고 일상화되면서, 짧고 가까운 여행을 즐기는 현상은 스테이케이션³⁾, 호캉스⁴⁾ 등 다양한 여행 행태가 있다.

3. 소백산 남부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3-1.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관 주도로 거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hardware) 위주로 개발하는 형태의 관광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되고 있다. 최근의 관광트렌드 특징은 MZ세대 주도, 모바일에 기반한 여행의 플랫폼화,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여행자의 증가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건강·치유·힐링 트렌드 확산, 가족과 함께하는 근거리 일상관광의 확대, 자연친화적 관광수요의 증가, 경험소비와 액티비티 중심 여행의 증가함에 따라 관 주도의 대형 관광시설은 이러한 트렌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은 지원하거나 민관협력방식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보유자원의 가치와 1인당 지출액(ARPC: Average Revenue Per Customer)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3) 휴가를 멀리 가지 않고 집이나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보내는 사회현상을 뜻하는 용어.

휴가를 멀리 가지 않고 집 혹은 집 근방에서 보내는 사회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stay'와 'vacation'의 합성어. 차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을 여행하고, 잠은 집에서 자는 형태의 휴가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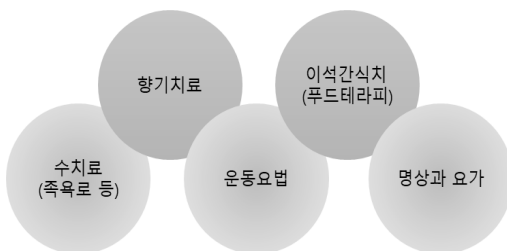
4) hotel과 vacance를 합친 말로,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의미

[표 4] 기 보유 관광자원의 명소화 사업 문제 및 해결방안

보유 자원	문제점	명소화방법
선비촌	투자효율성 저조	체험 숙박 시설 편의성 제고 (현대화 및 ICT인프라 구축)
무성마을	투자효율성 저조	내성천과 서천의 합수지형이 합궁형상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및 규제완화
부석사	ARPC 저조	부석사 주변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서비스 역량 강화, 템플스테이 검토
제민루(이석간경향방)	활용 미흡	식치음식 상품화 및 축제화
인삼 등 지역특산물	시장 침체 국면	컴파운드K 등 발효음식 개발, 응용상품다양화, Pet food 개발 등
국립산림치유원	투자효율성 저조	민간 경영 마인드 접목
예천 곤충	방문객 계절성 탈피, ARPC 저조	곤충 스마트팜으로 방문객의 계절적 차이 극복, 곤충치유프로그램 개발, 곤충 원격사육 프로그램개발
예천천문대	투자효율성 저조	별보기 카페, 캠핑촌 조성
여우종복원센터	관광상품화 미흡	여우 테마 동물관찰원
봉화 고택마을	관광상품화 미흡	고택체험 프로그램 개발
선비세상 (한문화테마파크)	2022년 개장예정 활성화 난망	실내외 동선 편의성 제고방안 모색, MZ세대 위주 상품 개발 필요

3-2. 소백산 힐링관광 클러스터 조성

소백산은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명산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소백산 힐링관광 클러스터의 5대 치유요소를 설정하여[그림 5] 영주, 예천, 봉화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치유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표 5]



[그림 5] 힐링관광 클러스터 5대 치유요소

[표 5] 소백산 힐링관광 클러스터 후보 지역

후보지역	추천배경
영주 풍기읍	국립산림치유원, 풍기온천, 소백산, 식치음식 등 치유자원 풍부
봉화군 춘양면 분천역 일대	눈(雪)과 목화를 주제로 Snow Fest, Cotton Fest 개최
예천 금당실마을	수려한 경관,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세계적 치유도시인 독일의 바트 뵘리시호펜(Bad Wörishofen)은 숲의 치유기능을 산업화한 치유도시로 도시민 전체가 치유산업에 종사하며, 200년 전에 개발된 크나이프(Kneipp) 치유프로그램이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그림 6] 바트뵘리시호펜(Bad Wörishofen)

인구는 14,000여명,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치유시설 23개소, 호텔과 펜션 170여개소, 객실수 6,000여실 규모, 연간 100여만명이 방문하여 연간 2,0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 바트 뵘리시호펜은 신부이자 의사인 크나이프(F.S. Kneipp)가 자연치유요법을 선보이면서 세계 최고의 치유도시로 발전. 크나이프요법은 이처럼 냉온수욕을 하는 물요법을 중심으로 산림산책을 하는 운동요법, 영양 균형을 맞추는 음식요법, 허브나 약초 등을 이용한 요리법, 입욕법, 아로마테라피를 가미한 식물요법 및 심신과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조화요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5) www.gsc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9. (2021.08)

3-3. 소백산권역 스마트 관광 서비스 구축

과거 관광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명소, 유적지, 랜드 마크 중심의 목적지에서 마을, 골목, 시장, 거리 등 지역주민의 일상 공간으로 바뀌면서 관광지에 대한 장소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SNS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움에 복고의 의미를 더한 신조어인 뉴트로(new-tro)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여행 목적지에 있어서도 근대화유산물을 활용한 도시재생콘텐츠가 인기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공간이 관광지화 되고, 대중매체와 SNS 등에 소개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한달살기 장기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 관광객들의 여행경험이 증가하고, 기존 여행형태와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면서, 낯선 여행지에 장기간 머무르며 지역을 제대로 알고 몸과 마음의 안정도 얻는 여행 행태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영주-예천-봉화 등 지역 관광지와 축제장, 명소, 숙소, 음식점 등의 계절별 개별 콘텐츠와 이를 연계한 점과 선의 공간 콘텐츠를 구축하여 스마트관광 서비스로 제공하여 방문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SNS로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주-예천-봉화 등 지역 관광지와 명소, 숙소, 음식점(點) 등 종합관광정보의 콘텐츠화 및 점들의 연결(線)로 방문객 편의성과 연계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관광 콘텐츠뱅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

3-4. 이석간경험방 식치음식 관광상품화

이석간경험방(李碩幹經驗方)은 유의(儒醫) 이석간(6)의 치료법을 모아 놓은 경험방서(經驗方書)로 음식류(飮食類), 수양방(修養方), 식기방(食忌方)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병증치료법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평소 건강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험방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영주에는 이석간 경험방의 산실이자 조선시대 최초의 의국인 제민루의 복원은 영주의 식치산업의 뿌리를 복원하는 사업적 가치가 있으며 식치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식치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크다.[표 6]⁷⁾

[표 6] 이석간경험방 요리 상품화

순서	메뉴명	비고
전식	건시죽	위장과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목은 식체를 소화시키며 기미와 어혈을 없애고 음성과 목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음.
	동아약주	동아(동과)로 만든 전통 약주(식치원)
	황자계송어만두길경탕	황자계와 송어로 만든 만두
	수정회법(수정냉도회)	돼지껍데기 등에서 콜라겐을 추출하여 달임과 식힘을 반복하여 수정처럼 맑게 만든 묵
본식	설하역적	좋은 쇠고기를 두드려 소금후추간을 하고 참기름으로 버무려 굵고 얼음물에 담그기를 반복
	천초기름배육회	천초(산초)기름과 배를 곁들린 육회
	치유부침밥	모듬이법, 백두옹과저, 자소엽, 배추침채, 방풍 매실육 등
	가마보코	송어살을 다져 펴친 후 꿩고기, 석이, 표고, 목이버섯과 해삼 넣고 태극으로 말아 찐 묵으로 육수를 곁들이기도 함
	유육양가	산초기름에 튀긴 가지와 골피, 생강채, 간장, 식초, 천초 등으로 버무린 가지무침
	황자계맥적	된장(두시)과 황자계
후식	상심자무스와 제호탕	제호탕은 오매육(烏梅肉), 사인(砂仁), 백단향(白檀香), 초과(草果) 등을 곱게 가루 내어 꿀에 재워 끓였다가 냉수에 타서 마시는 음료

3-5. 동물과 곤충의 관광자원화

소백산 남부지역은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호랑이, 영주 소백산생태관찰원의 붉은여우, 예천곤충생태원의 다양한 곤충은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마여행과 축제 등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 자원이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예천곤충생태원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영주의 소백산 불

6) 1509년(중종 4) 경상도 영천군(榮川郡) 두서(斗西)[지금의 영주시 영주동]에서 출생. 평소 권호문(權好文)[1532~1587]·박승임(朴承任)[1517~1586] 등 이황(李滉)[1501~1570]의 문인들과 교유하였는데, 의술로서 이름이 높았다. 명나라 황태후(皇太后)의 병을 고쳐 주고 황제에게 받은 천도(天桃) 씨로 술잔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집안에 가보로 전해진다고 한다. 또 이황의 문하로 있으면서 스승 임종 때 마지막 첩약(貼藥)을 지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특히 명나라 황제의 병을 고쳐 주고 돌아왔을 때, 조정에서 마을에 대청(大廳)을 설치해 주었다고 한다. 저서로 『사의경험방』,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 『이석간경험방』이 전한다. (출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7) 이석간 원저, 신성미 편저, 이석간경험방상 죽과 밥을 이용한 식치방, 선바움식문화원 식치원, p67, 2018

은여우는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토종동물 복원으로 반달곰, 산양, 소백산붉은여우 3종을 복원하고 있다. 영주시 순흥지역에서 자연으로 방사를 하고 사고로 돌아온 여우를 관찰할 있는 관찰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은 인간과 교감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임과 동시에 생태계 보호의 환경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휴머니얼(Human+Animal) 공존가치 실현, 붉은여우의 콘텐츠를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으로 지역 관광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7] 소백산 붉은여우 목표 설정 배경

목표	의의
교감형 여우생태관광지 조성	동물원 개념을 탈피한 동물복지에 기반한 휴머니얼파크 조성
여우 캐릭터 개발	여우캐릭터 개발을 통한 다양한 굿즈상품개발과 매체활용을 목표로 함
여우愛人 문화 확산	『여우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생명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력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 및 일자리 창출

3-6. 영주댐 복합레포츠 단지 조성계획 추진

영주댐 주변에는 오토캠핑장, 영주댐문화관광체험단지, 용혈폭포, 선착장, 용천루전망대, 용두교 출렁다리 등이 조성 또는 조성 중이나 영주댐의 정상화와 연계되어 있어 본격 이용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림 7] 영주댐에 조성중인 복합 관광레포츠 시설(계획안)

영주 남부권의 핵심 관광자원은 영주댐 복합레포츠 단지과 무섬마을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댐의 수질 개선과 정상운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영주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영주댐의 수변자원을 통한 다양한 액티비티관광자원을 통해 소백산 남부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소백산은 경북북부지역의 힐링관광자원으로써 뛰어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남부지역 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백산 남부지역 관광산업을 영주-예천-봉화의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첫째, 관광산업 관계자들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영주-예천-봉화 시군 관계자들이 관광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써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는 인프라 영역 못지않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역량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관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가칭'소백산관광종합센터'를 두고 온·오프라인 관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센터는 스마트관광 트렌드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스마트 생활관광플랫폼을 구축·운영해 앞서 나가는 스마트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센터에 소백산주변지역의 역사관·관광정보 및 안내관(숙박·식당·관광지·교통 예약 등)·관광기념품 판매관 등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에게 한 장소에서 모든 관광정보를 제공해주고 기념품도 판매해 주민들의 수익증대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광지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행태는 식음료 즉,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영주는 식치라는 먹거리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인들의 치유를 위한 동물 및 곤충자원을 통해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백산 붉은여우와 봉화의 백두대간 수목원의 호랑이를 통해 동물교감형 체험을 상품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캐릭터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 치유관광자원으로써 영주댐

수변자원 상품개발과 무섬마을 자원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금까지는 주로 지자체가 관광정책을 주도하고 민간부문은 따라가는 형국이었으나 앞으로는 민간부문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광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사업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객의 동선을 따라 세심하게 관광객 수용태세를 점검해 개선하고, 먹거리·기념품 등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혁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소백산남부지역이 미래 관광트렌드의 최첨단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접빈객(接賓客)의 예(禮)'로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관이 주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위주로 관광자원개발 형태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관광트렌드 특징은 MZ세대 주도, 모바일에 기반한 여행의 플랫폼화,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여행자의 증가, 건강·치유·힐링 트렌드 확산, 가족과 함께하는 근거리 일상관광의 확대, 자연친화적 관광수요의 증가, 경험소비와 액티비티 중심 여행의 증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경험한 여행의 발자취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영상콘텐츠 뱅크를 구축하여 소백산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여행객의 변화에 따라 관광은 관 주도형 사업보다 민간 주도형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관은 민간의 자본과 역량으로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는 부분과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관광은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인근의 다양한 자원을 경험하는 소소한 스몰브랜드 관광이 대세이다. 따라서 주변의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소백산 남부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 관광관련 담당자와 관광관련종사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지역관광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가기 위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남현, 지속가능한 경북관광성장전략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20
2. 김장환, 영주시 승격 40주년 기념 언택트 포럼, 영주시민신문, 2020
3. 김향자, 최자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 I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4. 문화체육관광부, <2020국민여행조사, 분석편>,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2019
5. 성보현, Post COVID-19 충북관광 미래방향과 추진과제, 충북연구원, 2020
6. 이석간 원저, 신성미 편저, 이석간경험방상 죽과 밥을 이용한 식치방, 선비음식문화원 식치원, 2018
7. 이원희, 박주영, 조아라,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8. 정연정, 관광동향 변화에 따른 도내 축제 활성화 방향, 충북연구원, 2020
9.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 19~20 소셜빅데이터 활용 국내여행 트렌드보고서, 2019
10. BC카드 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2017
11. Boyd, D. M,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article 11
12. <https://yeongju.go.kr>
13. <https://www.yw.go.kr>
14. <http://www.besttp.or.kr>
15. <http://www.ekta.kr>
16. <https://www.kata.or.kr>